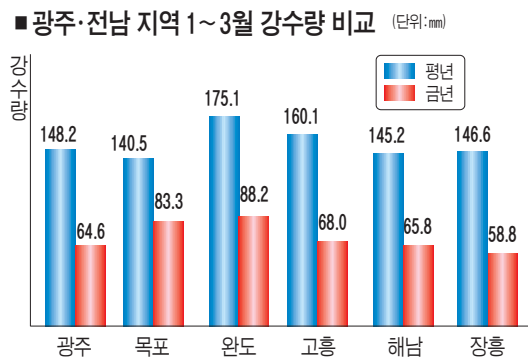


■르포 '최악 봄가뭄' 전남 들녘 가 보니

밭작물 말라죽고 전염병까지

“이달내 비 안오면 수확 포기할 판”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올 들어 광주지역의 강수량은 64.6mm, 평년 강수량 148.2m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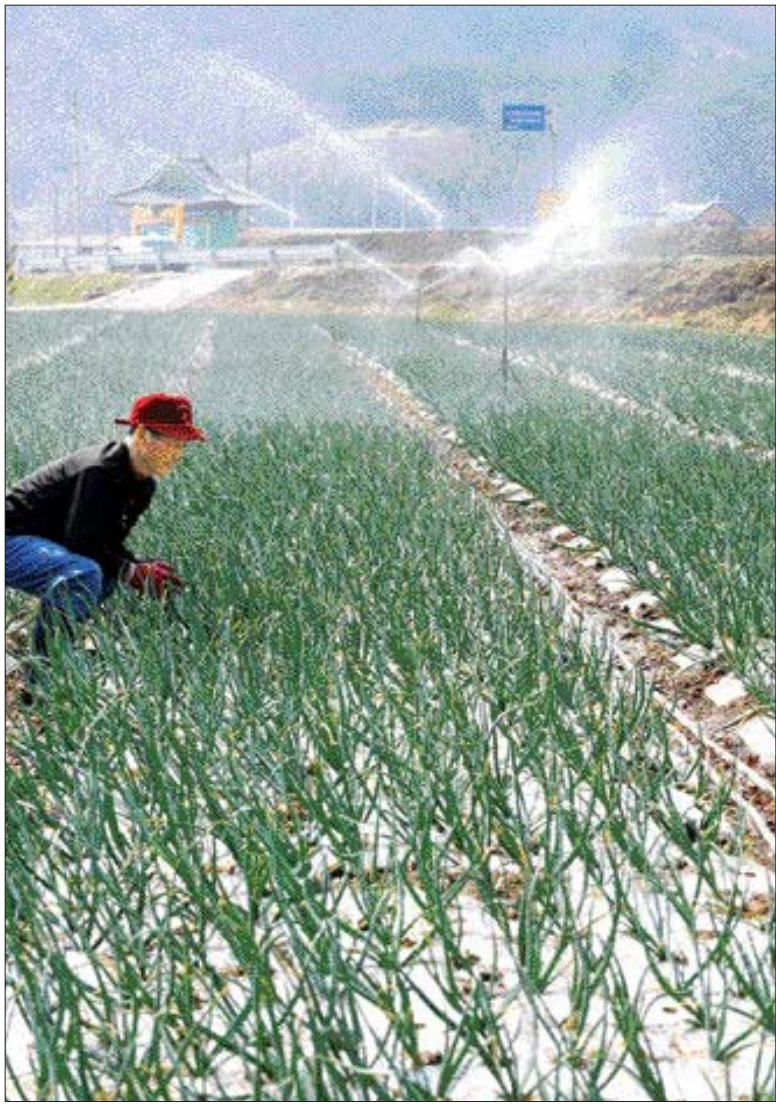
지하수도 없어서 올해 마늘농사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전남 일부 지역의 농작물에 전염병까지 번지고 있다. 1만4천여㎡의 밭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정해울(67·무안군 청계면 감정리)씨는 “가뭄으로 인해 전염병인 오갈병이 번져 1천여㎡ 가량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며 “스프링클러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비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석(32·청계면 소호리)씨는 “양파의 가지와 줄기가 썩지는 생육 재생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수분 부족으로 잎이 타들어 가는 등 성장 장애가 우려돼 스프링클러로 물주기에 나서고 있으나 끝어다 쓰는 물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못자리 설치를 앞두고 논물 가두기에 나서야 하지만 가뭄 물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봄철 가뭄으로 인해



20일 함평군 대동면에서 한 농민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양파밭에 물을 주고 있다. 봄철 가뭄이 극심해 농민들은 스프링클러를 연일 가동시키며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다. /최현배기자 choi@

고질적인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도서지역은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부터 시작한 가뭄이 봄철까지 이어지자 신안군 흑

산면·임자면, 완도군 보길면·노화읍, 진도군 조도면 등 3개 군 5개 읍·면에서 여름철 가뭄에 대비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매장에 쇠통 투척’ 농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대형 할인점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장에 쇠통을 투척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농민단체 회원 장모(3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통을 투척한 장

씨에 대해서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쇠통을 투척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채용 사기’ 4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기아자동차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 2007년 1월 오모(여·57)씨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직원과 업무적으로 절친하니 아들을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말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기아차 채용 사기’ 4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양형권 판사는 20일 기아자동차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 2007년 1월 오모(여·57)씨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직원과 업무적으로 절친하니 아들을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말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잠·복·강·도’

문 열린 집 찾으려 계단서 새우잠 자고 범행

흥기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혀

30대 강도가 아파트 문을 열고 침입, 흥기 아버지와 딸을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모(30·나주시 남평면)씨가 광주시 남구 진월동 J아파트에 몰래 숨어든 건 지난 19일 밤. 유씨는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기 위해 일일이 문 손잡이를 돌려보며 확인했지만 실패하고 옥상 계단에서 잠을 잤다. 날이 밝자 유씨는 문이 열려있던 7층 김모(58)씨의 아파트에 흥기를 들고 침입했다.

유씨는 먼저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김씨의 딸(27)에게 흥기를 보이며 금품을 요구했다. 딸은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들은

김씨는 안방에서 나와 유씨와 사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흥기를 빼앗겼지만 목과 손 등에 중상을 입었다.

이 사이 집을 빠져나온 딸은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경찰관 30여명이 아파트 주변을 에워쌌다. 유씨는 아파트 지하실로 몸을 숨겼지만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강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4년이 끝난 지난 17일 이후 4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정씨 집서 남성 혈흔·체액

‘안양 초등생 피살’ 경찰 수사 새 국면

안양 두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 집 화장실과 압수한 범행추정 도구에서 정씨가 아닌 각각 다른 남성의 혈흔과 체액이 묻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씨 집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인 톱 2개 가운데 우예슬(9)양의 피부조직과 정씨의 체액이 발견된 톱에서 이들과 다른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체액이 정씨의 것인지 다른 분비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정씨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가 더 있거나 공범이 존

재할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가 나갔다. 경찰은 또 피의자 정씨의 대학 선배 A씨를 소환, 조사중이다.

A씨는 정씨가 두 어린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지난해 성탄절 오전 만났고 살해 직후로 추정되는 이날 오후 10시 정씨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어린이를 살해한 동기와 수법 등을 캐기 위해 구속된 정씨를 상대로 범행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살해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등 심경 변화를 일으켰던 정씨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사립대 폐과뎀 강사 해고 가능”

대법, 광주여대 관련 판결

사립대학에서 정원외로 학과나 학부가 없어졌다면 소속 강사를 다른 학과나 학교로 발령낼 여지가 없는 경우 ‘폐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인 광주여대에서 해고된 전임 강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

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97년부터 광주여대의 B 전공 전임강사로 근무해왔는데, 대학 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 28일 최소수강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한 B전공을 폐과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463) 김장두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만능**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강풍에 불씨 7~8km 날려 아산 태워



○광주의 한 시립묘지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공원 묘지 제8묘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묘지 20기 등 묘지 600㎡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헬기 1대와 소방차 9대, 소방대원 4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강한 바람에 불씨가 7~8km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이 번져 북구 태령동 인근 야산 임야 0.1ha를 태운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난 점 등으로 미뤄 임산자에 의한 실화로 보고 조사 중.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MBC 문화방송

무인 + + **황주 황산 직행**
2008년 4월 11일 ~ 5월 17일 (매주 목요일)

무인 + + **장사장계 직행**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매주 목요일)

황산·장가피

중국 제일의 명산 황산은 기암 현이하고 가장 웅장한 있는 MBC 문화방송으로

광주/전남·북·유명여행사 판매 **광주MBC 문화방송 사무실** ■문의: (062) 226-6070